

한-아세안 관계, 최고단계 격상... AI·환경 등 협력범위 확장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선포

尹 대통령, 아세안 국가 정상회의 “아세안과 새로운 미래역사 쓸 것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 추진 5년간 아세안 인재 4만명 양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들과 잇따른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과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 번영 파트너로서 AI, 환경,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신임 총리와 총리 취임 후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라오스비엔티안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는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 지 35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구축해온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과 아세안은 포괄적 전략동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5년 간 우리는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더 긴밀히 연대하고 더 단단하게 결속해왔다”며 “이렇게 축적된 신뢰를 토대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늘어 이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은 더없이 가까운 이웃이 됐다”며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 한층 도약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 격상된 것이다. 이로써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11개 중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6개 국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35년을 위해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핵심축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아세안에 퇴역함양도 등을 이행할 예정이며, 한국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 경제협력으로는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에 대한 공조를 한다. 그러면서 ▲통상환경 대응 공조를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일로그’ 출범(2025년)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한 디지털 전환 지원 ▲AI(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및 AI 인프라

지원 ▲친환경 디지털 미래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사업’ ▲한-아세안 메탄행동파트너십(PARMA) 첫 시범사업 ‘메탄감축협력 사업(AKCM)’ 추진 등의 협력 사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문화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아세안의 미래세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4만명의 아세안 미래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환기시키고 강력한 연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 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평화·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담은 ‘8.15 통일독트린’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라오스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취임 후 첫 한일 정상 간 만남인 만큼, 양 정상은 2025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 확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

김병환 금융위원장, 국감 참석 “부실사업장 경공매·재구조화 추진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신속 진행”

“가계대출이 8월 상당히 증가했지만, 9월 들어 둔화되고 있다. 가계부채 연간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내로 증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7월 시행하려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이 9월로 미뤄지면서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가계부채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을 7월에서 9월로 미루면서 막차수요가 몰려 가계부채 증가폭은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며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9월 들어 둔화

이날 한 의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상환부담이 커져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말 채무불이행자는 73만1111명에서 2024년 84만7797명으로 16% 증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이 확대되며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는 이를 제한할



김병환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경우 저소득층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금융상품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용도”라며 “이부분을 줄일 경우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자금 마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신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고 금리가 높은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증가폭이 빨리 증가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해 이용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 개정돼 완성’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이전과 관련해선 “(법 개정) 앞서 인력을 이동시키는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조금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법률에

서 근거가 명확해야 효과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 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개정이 이뤄져야 본점 부산 이전이 가능하다.

이날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여야 지역구를 가지지 않고 8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에 찬성했다”며 “지금 와서 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미온적인 입장에서 계셔서 매우 의아한 마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가져온 정책이고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금융위 역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T, 내년 1분기 ‘AX 전문기업’ 출범

▶▶ 1면 ‘MS와 글로벌 AI...’서 계속

‘AX 전략 펀드’ 조성, 생태계 확산 ‘이노베이션 센터’ 공동 설립키로

KT와 MS는 MS와 협력 중인 오픈AI의 GPT-4o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형 AI 모델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한다. MS 자체 AI 소형언어모델인 파이 3.5를 기반으로 공공·금융 등 산업별 특화 모델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는 모델 학습을 위해 교육·역사·문화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KT의 서비스에 MS의 대화형 AI ‘코파일럿’을 도입해 한국형 AI 시장 확대를 꾀한다.

내년 1분기에는 AI·클라우드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AX(AI 전환) 전문기업’도 출범한다. AX 혁신을 원하는 기업에 글로벌 수준의 컨설팅·아키텍처·디자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AX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한 ‘AX 전략 펀드’도 공동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이노베이션 센터’도 내년에 공동 설립한다. 양사는 센터에서 AI·클라우드·미래 네트워크 관련 기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네트워크 현대화, 6G 분야 공동연구, 헬스케어·모빌리티 등 산업별 AX와 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연구 개발도 병행한다.

양사는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 AI·클라우드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MS는 앞으로 5년 동안 기술·컨설팅·마케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KT 직원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MS와 함께 ‘AX 밸류체인’을 구축해 한국형 AI 산업생태계를 확장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해 기업 고객에게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제공한다. ‘클라우드서비스공급자(CSP)’와 ‘관리형 서비스공급자(MSP)’를 병행하는 ‘도털 클라우드 사업자’로 진화한다는 목표다.

또 국내외 다른 기술 선도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확대해 더 넓은 분야의 AX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공공·금융·의료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KT는 이러한 MS와의 협업을 통해 5년간 누적 매출이 최대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약 27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해 2027년부터는 매년 1조원이 넘는 매출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KT 측은 공동 투자 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절반은 관련 인프라에, 나머지는 연구개발(R&D)과 마케팅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김영섭 대표는 “MS와의 협력으로 최고의 AI·클라우드 역량을 갖추게 되면 KT는 대한민국의 기업·개인 고객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맞춤형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이 될 것”이라며 “KT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클라우드 허브로 도약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기자 hyem@